

高句麗 冠帽에 관한 考察

金 英 淑

淑明女子大學校衣類科 講師

紀元前 37年 扶餘族의 一族인 高朱蒙이 建國한 高句麗는 約 700年間 滿洲와 北滿洲를 舞臺로 하여 活躍한 強大한 나라이며 韓民族史에 가장 重要한 位置에 있었다.

扶餘族은 4000年以前에 中國의 東北部에서 滿洲로 移動한 文化民族이며 漢나라에 依하면 그네들은 언제나 自己民族의 高度로 發達된 文化水準을 자랑하였고 周圍의 他民族을 南蠻 北狄 西戎 東夷라고 稱하여 野蠻人 취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扶餘族만은 文化水準이 높은 民族이라고 하여 同等의 待遇를 아끼지 않았다.

맥(貊)族에 對하여서는 春秋戰國時代의 孔子를 위시하여 所謂 漢書 南史 北史 齊書 隋書 舊唐書 唐書等 古文獻의 어느 것에도 文化를 가진 民族으로써 紹介되어 있었다.

果然 扶餘族은 滿洲地方에 散在되어 있는 數 많은 民族중의 先覺者이며 特히 高句麗는 滿洲 및 韓半島에 居住 하고 있는 모든나라의 中心이 되었다.

高句麗 冠帽의 基本型

古文獻 및 壁畫에 依하면 高句麗冠帽의 基本型은 幘 折風 笠의 세 種類로 區別할 수 있다.

幘 이라는 것은 頭巾狀 冠帽이고 巾에서 시작 된 것이지만 高句麗에서는 大加 主簿 라고 하는 高官의 地位에 속하는 者가 使用하였다.

高句麗의 幘과 中國 古代 漢의 “幘”과 틀린 點은 뒤가 없는 것 즉 無後幘이라는 點이다 「後」라는 것은 「收」를 말하는 것이다. 幘의 前面을 三角으로 截飾한 것을 顏題라고 하며 幘의 後部에 붙인 「布」는 「收」이다.

漢의 幘은 前面에 三角顏題를 截飾하고 後部에는 收를 붙였는데 高句麗의 幘은 收가

高句麗 冠帽에 관한 考察

없는 漢의 幘과 비슷한 것이다. 幘은 元來 上下貴賤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通用되었던 冠帽였는데 어느듯 大加 主簿와 같은 高官의 專用이 되고 말았다.

婦人의 冠帽는 巾幘 이라고 하여 여러 種類의 形으로 發展이 되었다.

幘에 關한 古文獻에서 魏志東夷傳, 高句麗條, 後漢書, 東夷高句麗條, 南齊書東夷高句麗條, 梁書諸夷傳高句麗條, 通典東夷高句麗條, 翰苑高句麗條 等の 諸書가 一致하여「大加 主簿頭着幘 如幘而無後」라고 記錄되어 있다.

다음 說文및 急就篇에 依하면 머리(髮)에 巾이 있는 것을「幘」이라 하고「幘巾」或은 承露라고 稱하였다 한다. 이것으로서도「幘」은 巾에서 發展된 것을 알 수 있다.

古墳壁畫에 平北龍岡郡 龕神塚의 四體의 騎馬人物은「空頂介幘」을 쓰고있다(第1圖)

또 大同郡 魯山里 鎧馬塚 雙楹塚, 滿洲揖安縣 通溝 舞踊塚의 人物畫에도 婦人의 巾幘에 是 通溝 角觥塚 主室奧壁畫 等이 있다. (第2圖)

折風은 庶民의 冠帽이며 二個의 새의 깃털을 꽂은 것으로써 階級을 나타낸 冠帽이며 上下階級을 莫論하고 모든 사람들이 使用하게끔 되었다.

魏書列傳 高句麗條에 依하면 머리에 折風을 쓰니 그모양은 弁과 같고, 새의 깃털을 左右에 꽂은 것으로 貴賤의 差를 나타 내었다(頭著折風其形如弁 旁插鳥羽貴賤有差)하고, 北史列傳高麗條에는 모두 弁과 같은 折風을 쓰고 官職에 있는 者는 두개의 새의 깃털을 꽂았다(人皆頭著折風形如弁 士人加插鳥羽) 라고 記錄되어 있다.

또 隨書列傳 東夷傳高麗條에 사람은 모두 皮冠을 썼는데 鳥羽를 兩쪽에 꽂는다(人皆皮冠使人加插鳥羽)라든가, 舊唐書 東夷傳高句麗條에는 그 冠과 帶(帶)는 모두 金으로써 장식했고 官의 地位가 높은 사람은 靑羅冠을 다음 地位의 者는 緋羅冠을 썼고 그것에 二個의 鳥羽를 꽂고 金과 銀으로써 장식 하였다.(其冠及帶咸以金飾官之貴者則靑羅冠, 次以緋羅冠插二鳥及金銀爲

第一圖 龕神塚, 空頂介幘

飾)라든가, 또는 舊唐書東夷高句麗條音樂에는 高句麗의 樂工人은 紫羅帽를 쓰고 鳥羽으로서 裝飾 하였다(高句麗樂工人紫羅帽飾以鳥羽), 또는 唐書 東夷列傳 高句麗에 大臣은 靑羅冠 그 다음은 絳羅冠이며 양쪽의 珮는 鳥羽로서 한다(大臣靑羅冠 次絳羅珮兩鳥羽), 翰苑蕃夷部 高



麗條에는 金羽를 가지고 貴賤의 階級을 밝히고 貴者冠은 金銀으로써 鹿耳를 하고 賤者冠은 折風이다(金羽以明貴賤…貴者冠以金銀爲鹿耳, 賤者冠折風). 李白樂府 高麗條에 金花折風帽를 쓰고 폭 넓은 소매로 翩翩춘다(金花折風帽翩翩舞廣袖).

北史列傳高句麗條에는 사람은 모두 머리에 折風을 쓰되 弁모양같고 官人에게는 二個의 鳥羽를 加插했고 貴者の 冠은 蘇骨이라고 稱하는데 대부분 紫羅로 만들고 金과 銀을 가지고 裝飾하였다(人皆頭著 折風形如弁士人加插二鳥羽貴者其冠曰蘇骨多用紫羅爲之飾以金銀).

周書 異域高麗條에 그冠을 蘇骨이라고 稱하고 紫羅를 使用하고 金銀으로써 裝飾하고 官에 品이 있는 者는 그위에 또 二信의 鳥羽를 꽂아 各各의 品位를 나타내었다(其冠曰蘇骨多以紫羅爲之雜以金銀爲飾其有官品者又插鳥羽於其上以顯異之) 등등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以上에 依하면 高句麗의 折風帽는 다음表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折風帽…無飾의 것으로서 一般庶民 및 上下모두 같이 使用한 平凡한帽
- 折風 — 鳥羽冠…鳥羽를 帽의 양쪽에 꽂아 階級을 나타내는것. 鳥羽帽 鳥尾帽 麕毛帽 金
屬鳥羽帽 立華飾寶冠 翼狀冠 金花折風冠帽等이 있다.
- 冠 — 鳥羽蘇骨冠…主로 貴者の 冠帽이며 白羅冠 青羅冠 緋羅冠 絳羅冠等이 있다.
- 皮弁冠…折風의 形은 弁과 같으나 武人의 皮冠 즉 皮冠帽도 역시 折風의 一種이
고 鎧馬塚의 從者五人의 冠이 즉 그것이다.

다음 古墳壁畫에서는 平北道龍岡郡雙極塚美道 西壁 및 東壁의 人物圖의 경우 검은 빛의 두개의 鳥羽를 白冠帽의 兩쪽에 꽂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 白羅鳥羽冠을 나타내고 있다. (第3圖)角觥塚



이와 같은 그림이 滿洲輯安縣 通溝 舞踊塚 主室左右壁의 騎馬人物(第3圖)에도 보인다. 그뿐 아니라 輯安縣 舞踊塚 主室 左右壁에는 흔하게 騎馬人物의 冠帽에는 두개의 鳥羽 (새깃털) 대신에 多數의 鳥尾를 使用한 것이 나타나 鳥尾冠이라고도 稱할 수 있는 冠帽도 當時에 流行하였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第4圖)

또 平南 龍崗郡 花山里 龜神塚前玄室南壁 또는 西方龜內에는 鳥羽와 鳥尾를 混用한 朔毛冠이라고 稱할 수 있는 異彩로운 冠帽가

第二圖 角觥塚 巾幘

옛보인다. (第5圖).

이러한 것에 依하여도 鳥羽冠에는 鳥羽冠, 鳥尾冠 毳毛冠 등이 있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또한 平南 大同郡 魯山里 鎧馬塚 主室左壁 寅防에 그려져 있는 人物의 冠帽에는 金屬製 鳥羽冠이 있고 文獻의 金羽, 銀羽를 증명하고 있다.

또 鎧馬塚 主人公의 冠帽은 金으로 만든 寶冠이며 當時, 王은 金屬製冠帽을 쓴 事實을 알 수 있다. 특히 塚主는 花枝狀 立飾冠帽 즉 翼狀冠帽을 쓰고 다음地位의 사람은 翼狀冠 쓴 사실이 알려 진다. (第6圖)

여기에 또하나의 冠帽을 紹介 하고자 한다. 그것은 鎧馬塚의 從者五人이 쓴 冠帽로서 확실히 圓形의 樺皮冠이다.

그러므로 當時에도 弁狀의 皮冠을 高句麗의 武人들이 즐겨 使用한 것을 알 수 있다. (第7圖)

笠은 뜨거운 太陽과 비를 가리기 爲해 使用된 것에서 부터 發達된 것이나 高句麗에서는 狩獵帽로서도 使用되었다. 記錄에는 아직 發見 되지않으나 壁畫에는 平南 龍崗郡 花山里 聯室古墳(龕神塚)의 狩獵人物圖에서 엿볼 수 있다. 笠 (第8圖). 이것이 依하면 狩獵人物圖에서 볼 수 있는 笠은 帽와 秤(簞)이다.

뿐만아니라 冠帽가 當時 一般庶民帽로서도 使用 되었다는 事實은 第8圖에 依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高句麗는 적어도 冠帽에 있어 「幘」「折風」「笠」三種類의 基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後代에 미친 影響

百濟와 新羅는 全面的으로 高句麗의 影響을 받았다. 魏書, 北史, 南史, 隋書, 舊唐書, 唐書等 古文獻에도 新羅 百濟의 服飾은 高句麗와 같다고 記錄되어 있다.

가령 北史列傳 百濟條 및 新羅條에는 其飲



第三圖 雙楫塚 幘



第四圖 舞踊塚 鳥尾冠

第五圖 龜神塚 麩帽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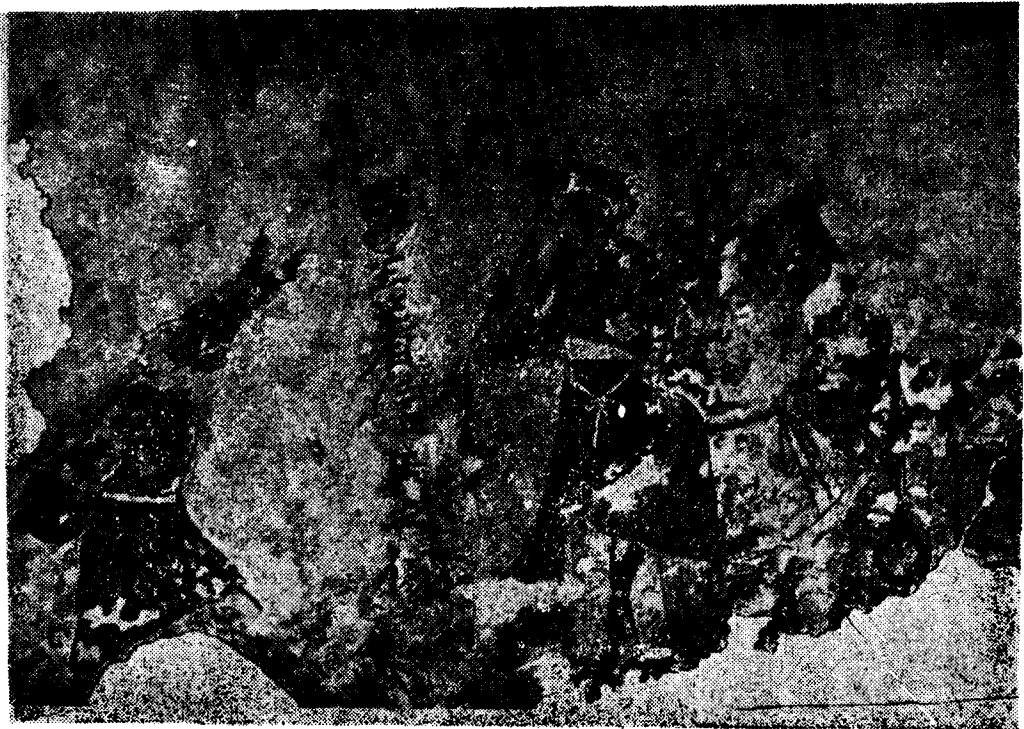


食衣服은 高句麗와 거의 같으나…그 冠의 兩廟에는 鳥羽를 달았다. (其飲食衣服與高句麗略同…其冠兩廂加翹)고 쓰여져있다.

新羅古都 慶州에서 金冠塚을 비롯하여 수많은 古墳에서 많은 金銀 및 金銅 鳥羽狀態 冠帽과 金具가 出土 되었다. 百濟의 古地 梁山夫婦塚에서도 같은 것들이 發掘되었다. 이것에 依하여서도 三國이 모두 金羽製의 鳥羽冠 使用 하였다는 事實이 立證 되는 것이다.

또 百濟의 梁山夫婦塚을 위시하여 新羅의 古墳에서도 樺皮製 冠帽가 發掘되었다. 이들이 冠帽에는 金屬性的 前立飾의 金具는 의

第六圖 鎧馬塚 翼狀冠



심할 必要 조차 없이 完全한 새의 깃털 狀態이므로 高句麗의 鳥羽飾冠帽과 다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百濟나 新羅에도 鳥羽冠이 存在하였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皮冠 역시 그 材料로 된것은 같았었다. 金冠에는 新羅의 慶州 金冠塚에서 發掘된 金冠을 비롯하여 金鈴塚 瑞鳳塚에서의 그것에 依하여 그 構造나 製造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金冠은 內冠과 外冠의 二部分으로 되었고 內冠은 辨狀이고 三角帽에서 되어진 것이며 高句麗의 折風帽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外冠은 內冠을 修飾하는 附隨物에 지나지 않는다. 內冠鳥羽狀裝飾은 高句麗와 같으며 外冠의 立華狀도 高句麗의 鎧馬塚의 寶冠과 同型이다.

그러나 新羅의 金冠은 立華飾이 花枝狀이고 高句麗의 寶冠에서 發達된 것이라 짐작된다. 이와같이 根本은 같으므로 新羅의 金冠 百濟의 樺皮冠은 高句麗의 鎧馬塚 主人公의 寶冠과 같으며 折風帽를 原型으로 하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笠은 折風과 系統이 다른 것이지만 百濟나 新羅에도 存在하였었다.

三國遺事 元聖大王條에 依하면 新羅의 元聖王(785~798)이 王位에 오르기前에 角干이라고 稱하는 官職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날밤 꿈에 當時의 官帽인 幘頭를 벗어버리고 素笠으로 바꾸어서 썼다.(王爲角干居 宰夢脫幘頭著素笠云...)라고 記錄되어 新羅에도 素笠이라고 稱하는 「笠」이 있었다는 事實을



第七圖 鎧馬塚樺皮冠

第八圖 肅神塚 笠





第九圖의一, 婦人頭巾

알 수 있다.

素笠이라고 하는 民帽은 當時 新羅에서 流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勿論 庶民層의 冠帽은 어느때 부터 流行이 되었었는지 알 수 없으나 文獻에 나타난 元聖時代 以前부터 新羅에 存在한 것인지 모른다.

高句麗의 龍神塚(龍崗郡 花山里)의 狩獵人物圖의 「笠」은 高句麗에서 온것이라고 믿어진다.

또한 百濟에도 「羅濟笠」이라고 稱하는 新羅것과 같은 모양의 笠이 있었다.

李朝時代의 名儒芝峰 李晬光은 著書「芝峰類說」에 羅濟笠이란 어느 時代부터 始作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이름으로 미루어보면 新羅와 百濟時代에 나타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羅濟笠不知 所始 但以名觀之無疑出於新羅百濟時...)라고 하였다.

鄭東愈(1744~1809)氏도 그 著書「畫永編下卷」에 方笠 이라는 것은 羅濟笠에서 생긴 것이다. (蓋方笠自羅濟以來爲國時別)라고 하고 新羅와 百濟에서 같이 使用되었다는 것

高句麗 冠帽에 관한 考察

을 立證하고있다. 위에 말한 바에 의하여 新羅 및 百濟에도 高句麗와 같이 折風 烏羽 笠等の 冠帽가 있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高句麗의 文化가 現在의 우리民族에게 強한 影響을 준것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重要한 것을 몇가지 예를 들면 溫突(온돌)과 服裝이다. 溫突은 우리 나라 全體의 家屋制度에 強한 뿌리를 박은 것이고 現在의 服裝도 高句麗 것이 原型이 되어 現在까지 發達된 것이다.

한편 冠帽 역시 그리하여 李朝時代 까지 계속되어 온것이 數많은 것이 있다. 두서너가지 예를 들어보면 匱兜(Kamtou)는 李朝時代에 上下 貴賤을 막론하고 使用된 것으로서 主로 室內帽였고 外出時는 그위에 黑笠 方笠등을 쓴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은 高句麗의 折風에서 由來된 것이라 믿어진다. (李如星著 朝鮮服飾考(199~201頁))

婦人의 頭巾(mrishgen)은 李朝時代에 主로 많이 使用되었고 高句麗의 舊都인 平壤

第九圖의 二, 婦人頭巾





第10圖

“곶갈”이라는 말의 뜻을 三角形을 意味하는 것이고 즉 “辨”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折風은 如辨이기 때문에 折風에서 始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第10圖)

其他 말뚝뽕거지(marduck Bung-Kegi)와 송낙(Song nack) 전모(髻帽)等도 역시 折風에서 始作된 것이라 믿어진다.

(第10, 11, 12, 圖)

삿갓(Sac Kack)은 더위와 비를 피하기 爲해 使用된 것이므로 笠에서 始作된 것

第12圖 송 낙



에서 흔히 婦人들에게 使用되었다. (第9圖의(一, 二))

특히 北쪽인 咸鏡北道와 南쪽으로는 濟州島 婦人들에게 더욱 많이 使用되었다. 地方에 따라 頭巾의 뒤쪽을 여매는 方法이 약간 달랐다. 그러나 頭巾은 高句麗婦人帽이며 巾幗이라고 한다.

곶갈(Koc Kgal)

現在 農民이나 僧(중)들에게 쓰이는 것이며 高句麗의 折風에서 由來된 것이다.



第11圖 말뚝 뽕거지

이다. (第13圖)

方笠 羅濟笠은 李如星氏는 折風에서 由來된 것을 否定하고 있으나 (同書 184~185頁) 筆者는 芝峰 李陞光, 又 鄭東愈, 李奎景等의 主張에는 根據가 있다고 생각된다.

以上 말한 것과 같이 高句麗, 幘, 折風, 笠 등 三種類의 基本型의 冠帽를 所有하고 있었으며 그것들의 각각은 文化發展에 따라 여러 種類로 發展하고 結局은 寶冠까지 製作하게 되었다. 또 그 冠帽는 當時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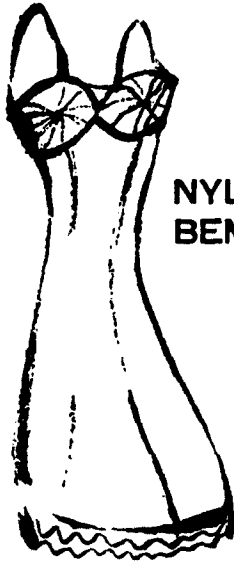
高句麗 冠帽에 관한 考察

그네들 나라의 文化圈에 屬하는 各國에 影響을 주었으니 新羅에 있어서는 金冠에까지 發展하였고 特히 日本에까지 影響을 미치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高句麗의 冠帽은 二千年의 李朝時代의 冠帽에까지 影響을 미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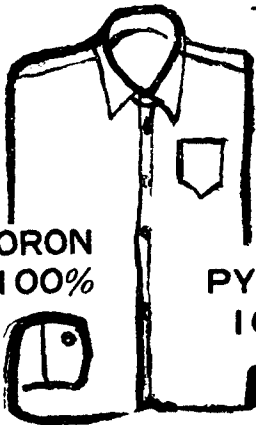
第13圖 갓



NYLON 100%
BEMSILKIE 100%

TAPILON 100%
NYLON 100%

당신의 상표
南榮나이론의 製品은
世界市場에서 認定하는
最高級品입니다.



TETORON
100%

PYLEN
100%

南榮나이론